

# 최민식 드라마 컴백, 24년 만이야!

강윤성 감독의 '카지노' 출연 검토  
전도연·한석규도 나란히 안방 복귀  
스타들 귀환...플랫폼 다양화 영향

최민식·전도연·한석규·고현정...  
이름 석 자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크린 스타들이 연이어 안방극장의 문을 두드린다. 그동안 주로 영화 작업에 몰두해온 이들이 드라마로 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매력을 드러낼 기세다.

16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한석규는 최근 새 드라마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가제) 출연을 논의 중이다. 극중 주인공이자 살인용의자가 된 법의학자 역할을 제안 받았다. 2월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히트 시킨 이정호 PD가 연출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조연급 캐스팅을 시작한 제작진은 내년 상반기 촬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사와 편성 시기는 미정이다.

드라마는 아직 기획단계이지만, 베테랑 배우와 '스타 PD'의 조합만으로도 일



최민식 전도연 한석규

짜감치 방송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영화 '천문: 하늘에 묻다'와 SBS '낭만닥터 김사부2'를 연달아 선보인 한석규는 내년에도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고현정과 송해교도 합류한다. 고현정은 JTBC '너를 닮은 사람'에 출연하고, 송해교도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검토 중이다. 두 작품 모두 내년 촬영 예정이다.

## ●영화감독들의 드라마 도전도

이처럼 베테랑 배우들이 안방극장을 새 무대로 삼는 배경을 방송관계자들은 플랫폼의 다양화에서 찾고 있다. 최근 영향력을 키우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OTT)이 신선한 소재와 형식의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스크린에서 활약해온 연출자들이 드라마 연출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등을 만든 허진호 감독은 '인간실격'을, 영화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은 '카지노'를 각각 연출한다. 이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배우들도 드라마 출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한다. 16일 한 방송관계자는 "올해 말과 내년에 예정된 적지 않은 영화 촬영 일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되면서 많은 배우들이 드라마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광주시교육청, 홍진영 출연 유튜브 비공개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가수 홍진영을 공식 유튜브에 출연시켜 논란이 되자 해당 영상을 뒤늦게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10월 초 공식 유튜브 채널에 '빛고를 광주교육 스타발굴'이란 이름으로 가수를 꾸꾸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홍진영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홍진영이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진영은 2009년 조선대학교에 제출한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커지자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 BJ 감스트, 떨어진 방송 장비에 머리 다쳐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감스트(김민지)가 인터넷 생방송 도중 떨어진 방송 장비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16일 감스트 측은 아프리카TV 채널 공지사항을 통해 "방송하던 중 크로마키(방송 화면 합성 스크린)가 머리에 떨어졌다"며 "방송 종료 후에도 감스트가 두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고, 뇌진탕과 뇌출혈 소견을 받아 MRI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감스트는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뇌진탕은 맞으나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면 방송은 상관없다고 한다"며 "잘 퇴원했다. 걱정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집 공개 논란 헤민스님 "모든 활동 중단"

방송을 통해 남산타워가 보이는 집을 공개한 이후 논란에 휩싸인 헤민스님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헤민스님은 16일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에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고 덧붙였다. 헤민스님은 7일 tvN 예능프로그램 '은연오프'에 출연해 접이 아닌 서울의 한 단독 주택에서 보내는 일상을 공개했다. 일부 시청자는 남산타워가 보이는 집이 불교의 무소유 문화와 배치된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SNS 재개 비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가수 고영욱이 SNS를 재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SNS를 시작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으나 또 다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를 단호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12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는 글을 올려 비난을 받았다.

### 씨엘, 30일 발매 예정 음반 내년 초 연기



가수 씨엘(CL)이 새 앨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매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씨엘은 16일 SNS를 통해 "지금 미국에서 음반 작업과 2021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디보니 좋은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은 아이 디어가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씨엘은 지난 달 더블 싱글 '화'와 '파이브스타'(5STAR)를 발표하고, 30일 새 음반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었다. 앞서 발표한 '화'는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미국 CBS 인기 토크쇼인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에서 첫 무대를 치르기도 했다.



"원전체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룹 비투비의 새로운 유닛 비투비 포유(BTOB 4U)가 출시표를 던졌다. 멤버 서은광·프니엘·이민혁·이창섭(왼쪽부터)이 16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첫 번째 미니앨범 '인사이드'(INSID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쇼 유어 러브'를 선보이고 있다. 다른 멤버 정일훈·육성재·임현식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주현희 기자 heth1147@donga.com

## 케이팝, 세계 정치적 메시지 중심에 서다

### 트와이스 곡 '안티 트럼프 송' 사용 태국 반정부 시위에서도 케이팝 울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적 이슈에도 연이어 휘말리고 있다. 지난달 방탄소년단(BTS)의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이 중국에서 거센 논란을 모은 뒤 현지 대학 강에서 BTS의 내용을 사전 검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걸그룹의 노래가 해외 정치적 대립 현장에서 불리는 등 케이팝의 영향력을 방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쓰촨대와 미국 피츠버그대가 공동 설립한 쓰촨대-피츠버그인스티튜트의 한국인 정아를 교수는 지난달 경영대학에서 '케이팝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의 전 대

학 관계자가 강의에서 BTS 관련 부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교수는 강의의를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초 중국 광명매체와 누리꾼은 미국의 밴 플리트상을 받은 BTS가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두 나라가 함께한 고통의 역사를 항상 기억할 것"이라는 수상 소감을 내놓자 크게 반발했다. 최근에도 중국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회귀동물 판다를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귀중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블랙핑크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이날 '한국의 케이팝, 중국 공산당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의 수많은 밀레니얼이 한국의 케이팝에 매료된 가운데 케이팝이 중국 당국에 의해 '정치적 뜨거운 감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케이팝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얻고

있음을 말해준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필 스페셜'이 최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안티 트럼프 송'으로 불린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한 누리꾼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지아주에서 역전승을 거두자 축하영상에서 '필 스페셜'을 배경음악으로 썼다. 영상은 SNS에서 공개 3일 만에 27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노래까지 큰 화제를 모았다. 또 지난달 태국 반정부 시위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가 울려 퍼졌다.

이는 케이팝이 또 다른 의미의 '글로벌 언어'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은 "태국 젊은이들, 정부에 맞서는 수단으로 케이팝을 들다"라는 기사를 통해 이를 조명했다.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온 케이팝이 이제 음악적 공감대를 넘어 각국 팬들이 스스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데 활용할 만큼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셈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인기 핸드 OST 컬렉션 12월 일본판 공략한다

'사랑의 불시착' 등 18편 36곡 수록

일본 한류를 이끈 한국드라마가 한 무대에 모인다. 테마곡 등 각 작품의 대표 삽입곡을 모은 OST 편집앨범을 12월 일본에서 선보이며 한국드라마의 열기를 이어간다.

빌보드 재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해 18편의 한국드라마에 삽입된 36곡의 노래가 한 앨범에 묶인다. 편집앨범 '위 러브 코리아 드라마-OST 히트 컬렉션'으로, 12월16일 일본에서 나온다. '도깨비', '슬기로운 의사생활', '100일의 낭군님', '더 킹:영원의 군주' 등이 수록 드라마 목록에 올랐다.

이번 앨범에는 '사랑의 불시착'에서 백예린이 부른 '다시 난 여기', 그룹 엑소의 멤버 첸이 동료 도경수가 주연한 드라마 '100일의 낭군님'을 위해 선보인 '뽕뽕연가', 그룹 레드벨벳의 조이가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공개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룹 마마무의 화사가 열창한 '더 킹:영원의 군주'의 'Orbit' 등이 담겼다. 케이팝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해외에서 화제를 모은 대표적인 한국드라마 삽입곡을 부르면 '협업'하게 된 셈이다.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주연 조정석도 이름을 올렸다. 이미 올해 여름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 차트 상위권에 올랐던 '알로하'를 다시 부른다.

일본의 한국드라마 OST 앨범은 올해 '사랑의 불시착' 등이 현지 한류를 이끌며 시청자의 큰 사랑을 받은 데 이어 선보이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한국드라마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현재 열기를 내년에 이어가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태진 기자 bong82@donga.com